

“빛고을 광주 명성 안고 빛나는 팀 만들 것”

광주FC 이정호 감독 올 시즌 포부
‘1부 승격’ 목표... “승패 떠나 최선”
유기적·공격적 플레이 중점 훈련

“빛고을 광주라는 명성답게 나보다는 선수들이 빛나는 팀을 만들도록 1부리그 승격을 목표로 준비하겠다”

프로축구 광주FC 이정호 감독(47)은 동계 훈련에 앞서 3일 오전 진행된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마주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정호 감독은 “2년 동안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구단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 기대도 크고 흥분도 된다”며 “마침 구단에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프런트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K리그2로 활동 무대를 옮긴 광주FC의 올 시즌 목표는 ‘1부’ 승격이다.

이 감독은 “승격은 쉽지 않은 것이다. 목

표는 승강 플레이오프, 그다음 승격이다. 나보다는 선수들이 승격에 대한 바람이 간절하다”면서 “그러나 의욕만 가지고 한다면 실패했을 경우 실망이 크고 포기로 빨라질 것이다. 스포츠는 당연히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만, 승패보다는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승격이라는 큰 목표가 어느새 눈앞에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광주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팀이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작년 시즌에는 팀에 어딘가 구심점이 없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올해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를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고 밝혔다.

전력 보강에 대해서는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는 유기적이고 공격적인 시즌플레이를 할 계획이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포지션 변경에 따른 역할을 선수들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감독은 “광주는 젊고 빠른 선수들이 많다. 선수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 훈련도 필수적이다. 하루빨리 선수들의 세세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강력한 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감독은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광주 팬들과 시민들에게 끈끈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팀이 지고 있더라도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동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팀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2시즌 승격을 향한 담금질에 돌입한 광주FC는 3일 오전 선수단을 소집, 코로나19 진단검사(전원 음성)를 마친 뒤 1차 전지훈련지

인 경남 창원 축구센터로 출발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1차 동계훈련은 오는 14일까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한 근력 강화, 지구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체력 훈련에 집중한다. 또 선수 개개인의 역량평가를 실시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축 선수들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선수 보강에도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2차 동계훈련은 17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별교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선수들 간의 호흡 및 조작성 향상에 주력하고, 전술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을 병행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K리그는 내년 11월 카타르 월드컵 일정으로 인해 시즌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다. 광주FC K리그2 개막전은 오는 2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이정호

광주FC 코치진 구성 완료

이정규·조용태·신정환·김경도 선임

프로축구 K리그2(2부)에서 올 시즌을 맞는 프로축구 광주FC가 이정호 감독 체제의 코치진 구성을 마쳤다.

광주FC는 3일 “이정호 감독과 함께 올 시즌을 이끌고 갈 코칭 스태프에 이정규 수석코치, 조용태 필드코치, 신정환 골키퍼(GK)코치, 김경도 피지컬 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정규 수석코치는 2005년 성남 일화(현 성남FC 전신)에서 데뷔해 2019년 아산 무궁화(현 충남아산) 코치로 부임해 3년간 박동혁 감독을 보좌했다.

조용태 필드코치는 광주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다. 수원과 경남을 거쳐 2014년부터 광주 유니폼을 입은 조용태 코치는 3년간 51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을 기록했다. 이정호 감독과는 2016시즌 광주에서 수석코치와 선수로 한솥밥을 먹은 바 있으며 은퇴 후 광주 U-18 감독과 코치에 부임해 2019 K리그 유스 챔피언십, 2019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 등에 기여했다.

신정환 코치는 모교인 고려대를 비롯해 청주대에서 골키퍼 코치직을 수행했다.



광주FC 코칭스태프. (왼쪽부터) 김경도 피지컬코치, 조용태 필드코치, 이정규 수석코치, 신정환 GK코치. /광주FC 제공

김경도 코치는 지난해 제주UTD에서 선수단의 피지컬 및 재활을 담당했다.

이정호 감독은 “팀을 혼자 이끌 수 있는 게 아니다. 감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직접 코칭 스태프로 모셨다”며 “실력뿐 아니라 선수단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도 코칭 스태프들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코치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감독은 “무엇보다 K리그2의 흐름을 아는 코치진들로 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효율적인 훈련을 통해 개막전이 다가올 때까지 팀의 역량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광주FC는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전남 별교 일대에서 2차 동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KIA, 6일 김종국 감독 취임식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의 취임식이 오는 6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취임식에는 KIA타이거즈 최준영 대표이사과 장정석 단장을 비롯한 일부 프런트와 최형우 선수가 참석해 김종국 신임 감독의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취임식에서 최준영 대표는 김종국 감독에게 유니폼과 모자를, 장정석 단장과 최형우는 축하 꽃다발을 각각 전달한다.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김종국 감독의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한편 KI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접종완료 및 PCR 검사 음성 확인 한정)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테니스 간판 권순우,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6강 진출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53위·당진시청)가 2022년 새해 첫 경기를 완승으로 장식했다.

권순우는 3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차 대회(총상금 50만 달러)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니시오카 요시히토(81위·일본)를 2-0(6-1 6-2)으로 완파했다.

권순우는 이날 승리로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 전망을 밝혔다.

니시오카는 키 170cm로 투어 최단신 선수지만 왼손잡이에 탄탄한 수비와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을 겸비한 까다로운 상대였다.

그러나 권순우는 이날 상대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3-0까지 앞섰고, 4-1이던 상대 서브 게임에서는 30-30에서 챌린지를 통해 판정을 뒤집고 30-40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 5-1을 만들었다.

볼과 23분 만에 첫 세트를 따낸 권순우는 2세트 첫 상대 서브 게임마저 브레이크하며 니시오카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았다.

2세트 게임 스코어 4-1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줬지만, 곧바로 이어진 상대 서브 게임을 빼앗아 결국 1시간 8분 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하위권 경기력 회복세... ‘전력 양극화’ 완화되나

흥국생명 젊은 선수들 꾸준히 성장
IBK 최근 6연패에도 경기력 좋아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상-하위권 팀들의 격차가 뚜렷하지만, 하위권 팀들이 조금씩 경기력을 회복하며 차이를 좁여가고 있다.

비시즌간 연명의 중국 진출과 이재영-다영 자매의 이탈로 전력이 급감한 5위 흥국생명은 올 시즌 초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를 탔다.

흥국생명은 2일 디펜딩챔피언 GS칼텍스와 홈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하기 전까지 4연승을 기록했다.

주포 캣백과 김미연 ‘쌍포’가 공격을 원활하게 이끌었고 이주아, 김채연 등 젊은 센터들이 중앙에서 잘 버텼다.

수련선수 출신 세터 김다솔도 경험을 쌓으며 어엿한 주전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흥국생명은 GS칼텍스를 상대로 지난 3차례 맞대결에서는 단 1개의 세트도 빼앗지 못했지만, 2일 경기에선 세트마다 치열한 혈투를 펼치면서 대등하게 맞섰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흥국생명은 다른 팀이 된 것 같다”며 “특히 실수가 줄어들고 짜임새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1일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의 경기.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한 흥국생명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 감독은 “최근 리그의 양극화 현상이 줄어든 것 같다”며 “간장을 늦추면 어느 팀이나 하위권 팀들에게 패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세터 조소화와 김사나 전 코치의 이탈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던 6위 IBK기업은행도 조금씩 정상화하고 있다.

최근 6연패에 빠졌지만, 경기력만큼은 나쁘지 않다.

새 외국인 선수 달리 산타나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2위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 폴세트 접전을 펼쳤다. 26일 1위 현대건설전에서 치열하게 승부를 겨뤘다.

IBK기업은행은 겪은 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외국



지난달 23일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경기. IBK기업은행 김호철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IBK기업은행은 시즌 초반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외국인 선수가 정상적으로 뛰다면 전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생팀인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은 노선을 바꿨다. 젊은 선수층과 전력 문제를 인정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출전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현재 14연패 중인 페퍼저축은행은 반전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하위권 싸움을 하던 흥국생명과 IBK기업은행이 정상화하면서 홀로 뒤처졌다.

그러나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은 여전히 간절하게 매 경기를 펼치고 있다. 주장 이한비는 지난달 29일 흥국생명과 경기에서 패한 뒤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아직 올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 /연합뉴스